

주간기도정보

2025. 4. 15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사 62:7) 주님은 열방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간기도정보는 이 말씀에 근거하며, 열방의 소식들을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여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진행순서 (1) 예배 (2) 한국과 북한,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3) 열방을 위한 기도 - 한주간 긴급기도

1.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선교지 이단 문제는 전쟁 상황, 전략과 무기 마련하겠다”

KWMA, 10일 선교지이단대책실행위원회 발족



선교지에서 발생하는 K-이단 문제에 기민한 대처를 위한 위원회가 발족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는 10일 ‘선교지이단대책실행위원회’를 개최하고 최근 선교지에서 붉어지고 있는 한국발 이단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장에 취임한 진용식 목사는 ‘교회의 영적 전투’를 주제로 말씀을 선포했다. 진 목사는 “교회는 지금 전쟁 중이다. 한국교회는 매년 10만 명 이상의 소중한 영혼을 이단에 뺏기고 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20년만 지나면 이단이 정통교회보다 많아진다.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의 상황만 심각한 것이 아니다. 선교지는 오히려 더 큰 문제에 봉착했다. 어느 선교지에 가도 한국발 이단은 다 있다. 우리의 10배 이상의 자본을 투입하며 돈으로 선교지의 영혼을 사려 하고 있다”며 “이단과의 전쟁에서 가장 유용한 무기는 ‘말씀’이다. 이단들의 잘못된 교리를 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대응 전략을 잘 준비해 복음을 교회를 지키는 위원회가 되겠다”고 전했다.

진 목사는 “최근 통화한 베트남의 한인선교사연합회 관계자는 현지교회들이 한국발 이단들에 넘어가고 있어 상황이 심각하다며 도움을 요청해왔다”며 “현지에서는 최근 한국에서도 급성장 중인 중국발 이단 전능신교가 현지교회뿐 아니라 한인교회까지도 전부 다 침투하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실행위 코디네이터를 맡은 양형주 대전도안교회 목사도 “몽골의 기독교 인구가 5만명 정도라고 하는데 신천지 신도는 1만5,000여 명, 구원파는 5,000여 명에 이른다는 통계가 있다”며 “더 큰 문제는 점점 규모가 커지는 이단들이 현지 정통교회 연합회로 들어가 조직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계속한다는 점이다”고 말했다.

환경사를 전한 KWMA 사무총장 강대홍 선교사는 “최근 선교지에서 이단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교회를 세우는 일도 중요하지만, 교회는 뺏기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 이를 위해 평생을 이단 문제에 헌신한 분들과 힘을 합쳤다. 위원회를 통해 선교지 이단이 박멸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진 목사는 “모든 이단 대처의 목적은 잘못된 가짜 그리스도에 집중된 이단 교리를 깨고 예수께 돌아오도록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며 “한국교회와 KWMA가 함께 이단 문제에 필요한 대처법과 전략을 잘 세워나가려 한다”고 전했다.

한편, 프랑스 정부가 신천지의 자국 내 확산을 우려하고 있다. 프랑스 일간지 르파리지앵에 따르면, 2022년 이후 이 단 관련 신고가 1,550건을 넘었으며, 정부 보고서에서 신천지를 특별히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프랑스 내 신천지 신도는 약 1,200명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하나님의교회세계복음선교협회(하나님의교회)가 4월을 ‘유월절 새 생명 전도대회’로 정하고, 대규모 국내 포교에 나서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들은 사회봉사 등을 통해 외부에 친화적인 이미지를 보이지만, 고(故) 안상홍을 재림 예수로 믿는 단체로 인해 분별이 필요하다(출처: 아이굿뉴스, 국민일보 종합).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골로새서 4:8,15)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에베소서 6:17-18)

하나님, 거짓 교리와 헛된 속임수로 교회를 뒤흔들며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사로잡으려는 이단과 배후의 악한 영을 꾸짖으사 파하여 주십시오. 이 일을 위해 설립된 선교지이단대책실행위와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한국과 선교지의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며 전쟁하는 용사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이단 문제를 통해서 도리어 잠자는 한국 교회를 깨우사 어둠 권세를 무력화하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이단이 결코 흉내 낼 수 없는 십자가 사랑과 진리가 생명 된 증인들을 통해 예수교회가 부흥케 하옵소서. 어둠이 짙은 마지막 때에 모든 열방에 십자가 높이 들려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빛을 비춰주소서.

2. 북한을 위한 기도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소서”

북한, 인민반장 기피 현상 확산… 통제력 상실 징후인가
영향력과 상징성 있는 직책으로 평가되는 것은 과거 이야기…



북한 내 인민반장 기피 현상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일부 지역에서는 인민반장을 임명하지 못해 주민들이 돌아가며 역할을 맡고 있는 실정이다. 인민반장은 북한 사회 최말단 통제조직인 ‘인민반’을 이끄는 인물로, 약 20-30가구의 일상생활 전반을 관리하며 각종 동원, 검열, 현납 등 당국의 지시를 수행하는 핵심 역할이다.

과거에는 영향력과 상징성이 있는 직책으로 평가됐지만, 최근 들어 주민들 사이에서 부담과 비난의 대상이 되며 회피 대상이 되고 있다. 인민반장은 청소 지도부터 시작해 각종 행사 참여 독려, 정치 학습 조직, 농촌 동원까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특히 주민들 사이에서 신뢰를 얻은 사람이 선출되는 방식이었기에, 한때는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 자리’라는 인식도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주민들의 반감과 비협조로 업무 수행이 어려워지면서, 활동비를 올려도 지원자가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인민반장 활동비는 지난해 월 2천 원에서 3만 원으로 대폭 인상됐지만, 여전히 기피 현상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북한 당국은 지난 3월 16일부터 이틀간 평양에서 ‘인민반장 열성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는 김정은 정권 이후 처음 열린 행사로, 19년 만에 다시 열린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당국이 전국적으로 인민반 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자인한 것이라, 주민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인민반장들은 당국과 주민 사이의 ‘중간자’ 위치에서 끊임없는 갈등에 시달리고 있다. 지시는 강경하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결과를 낼 수 없는 상황이다.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면 이들은 당국의 비판을 받지만, 주민들을 과도하게 압박하면 고립당한다. 이처럼 누구 편도 들키 어려운 상황에서, 인민반장을 맡으려는 이는 갈수록 줄어드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 당국이 주민들에게 요구하는 과제량이 크게 늘었다. 농촌 지원, 물자 납부, 각종 행사 참여 등 주민들에게는 실질적인 보상 없이 반복되는 ‘무상 동원’만이 강요되고 있다. 주민들은 이에 대해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김정은 시대에 와서 진행되는 정책들이 자신들을 위한 것이라고 체감하지 못하고 있어, 당국의 정당성 자체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과거에는 명예롭던 인민반장이 이제는 서로 피하고 떠넘기는 존재가 된 것이다. 이는 북한 당국이 현장의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으며, 일방적인 동원과 통제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인민반장이 없는 인민반이 생겨난다는 것은 북한 당국의 정치가 얼마나 주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지금 북한에 필요한 것은 명목상의 회유나 선전이 아닌, 주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주는 정책일 것이다(출처: 자유아시아방송, 기도24·365본부 종합).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베드로전서 2:9)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야고보서 3:17-18)

하나님, 한때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인민반장이 이제는 비난과 기피 대상이 되고, 점점 그 통제력을 잃어가는 북한에 주의 공의가 임하길 간구합니다. 지금 이때야말로 전적인 주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하오니 백성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사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에 선포하옵소서. 이미 균열이 시작된 북한 체제와 사상이 더욱 무너지게 하시고 명목상의 회유나 선전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음을 김정은 정권이 인정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무능한 자에게 임하시는 구원의 은혜가 모든 영혼에 베풀어지게 하소서. 북한에 진정한 왕 되신 주님의 소유된 백성들이 위로부터 난 지혜로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3.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힘써 소리를 높이라”

헌신으로 만들어낸 장애인 청년들의 첫 비전트립 여정

교회가 부모의 부담 덜어주면 더 많은 청년이 교회로 나올 것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주로 돌보는 이들은 가족 구성원이 82.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특히 장애 자녀를 둔 부모에게 집중되는 돌봄 책임은 현실적으로 큰 무게로 다가온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는 이들의 짐을 함께 나누며 장애 청년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서울 동작구 강남교회(고문산 목사) 장애인 부서 중 하나인 ‘다사랑부’(20~35세 청년)가 지난달 28일부터 나흘간 일본 나고야로 비전트립을 다녀왔다. 7명의 장애인 청년과 21명의 교역자 및 섬김이가 함께했다. 장애인 부서에서 해외를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출발부터 쉽지 않았다. 휠체어를 비행기에 실으려고 갈아탄 횟수만 세 번, 비장애인 승객보다 먼저 탑승해 가장 나중에 내려야 했다. 짐의 양도 남들보다 2-3배 많았다. 이동을 위해 일본 현지에서는 휠체어 리프트가 있는 버스를 대여했다. 여정은 불편했지만 누구 하나 뒤처지지 않았다. 모두가 함께 움직였기 때문이다.

비전트립은 지난해 수련회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시작됐다. 청년들에게 ‘가고 싶은 곳’을 물었더니 대부분 국내가 아닌 호주, 일본 등 해외를 적었다. 장애인 부서 담당 김부림 부목사는 “비장애인 청년과 다를 바 없이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이 많은 청년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처음 해외에 나가보는 청년도 적지 않았다. 청년들의 꿈이 실행으로 옮겨지기까지 교회 공동체의 전폭적 지원이 있었다. 익명의 성도가 2,000만 원을 후원한 것이 신호탄이 됐다. 청년들과 섬김이에겐 일부 경비만 받고 보호자 비용은 전액 교회가 감당했다.

강남교회의 장애인 사역을 열정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다. 교회의 5대 비전 중 하나가 ‘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일 정도로 장애인 사역에 남다른 애정을 보인다. 장애인 부서도 초·중·고등학생으로 이뤄진 ‘사랑부’와 청년으로 구성된 ‘다 사랑부’, 장년으로 이뤄진 ‘밀알부’가 있다. 교회 대대적으로 내려온 장애인 사역을 향한 비전은 교회 전체에 퍼져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 후원을 끌어냈다.

변자영(27)씨는 “이번 비전트립은 인생에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기회였고 자신감을 얻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교회 친구·동생들과 함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음에도 기회가 생기면 또 가고 싶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장애인 사역은 무조건 헌신하는 사역”이라며 “장애인 자녀를 가진 부모님은 평생 아이의 장애를 생각하며 살아간다”고 했다. 또한 “장애는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더 퇴행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며 “부모의 부담을 교회가 덜어준다면 더 많은 청년이 교회로 나아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출처: 국민일보, 기도24·365본부 종합).

풀은 마르고 꽂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이사야 40:8-9)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사랑하느니라(야고보서 2:13)

하나님, 교회 안에서조차 외면받기 쉬운 장애인 다음세대를 향한 우리의 역할을 고민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일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다음세대들과 그들을 돌봐야 하는 가족을 향한 아버지의 긍휼을 교회에게 부어 주십시오. 교회가 장애에 대한 마음의 담을 허물고 주 안에 한 형제자매임을 고백하게 하소서. 장애인 다음세대가 자신을 구원하신 은혜의 복음을 만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재창조하신 하나님의 원형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또한 그들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세대로 일어나게 하소서. 그리하여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을 더는 두려워하지 않는 선교 완성을 향한 복음과 기도의 증인으로 담대히 서게 하옵소서.

다음은 ‘열방의 긴급기도정보’로 기도가 진행됩니다.

각 해당 장소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실1 -

기도실2 -

기도실3 -

소그룹별 기도가 마친 후에는 다시 함께 모여 합심기도로 마무리합니다.